

광주복지재단 '사랑나눔 헌혈 및 성금 모금' 행사



(재)광주복지재단은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공동으로 '2020 희망플러스 사랑나눔 헌혈 및 성금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안전 업무 협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이 지난 1일 전남도,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NH농협생명 전남총국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송대범·앞줄 오른쪽 세번째) 전직원은 최근 닥터헬기로 인한 소생을 함께 참여보자는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광주천 방역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단 인근시설 및 광주천에서 방역 활동을 펼쳤다.

“특~소는 흥어 맛, 우리 따라올 사람 없죠”

‘속성 흥어 외길’ 전통식품 명인 지정 영산포 김지순·김영수 씨

김지순 대표, 60년 전통방식 고수... 흥어거리 ‘살아있는 전설’ 김영수 대표, 황토 속성법 특허 획득...아들과 2대가 메뉴 개발

전라도 전직장을 대표하는 음식인 흥어의 맛과 명성을 이어온 흥어업체 대표 2명이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됐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는 최근 ‘금성수산’ 김지순(여·76) 대표와 ‘영산포흥어’ 김영수(53) 대표를 전통식품 명인으로 확정, 인증서를 교부했다.

김지순 명인은 속성 흥어만 60여년 간 다룬 경력의 소유자로 영산포 흥어거리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꼽힌다.

그는 “영산포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스무살에 흥어 도매를 하는 남편을 만난 이후부터 쪽 흥어와 함께 살아왔다”며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흥어를 손질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명인은 전통방식을 오롯이 살려 흥어를 속성시킨다.

흥어 특유의 특 쏘는 감칠맛과 부드러운 면서도 찰진 식감을 살리기 위해 향이리에 짚을 깔아 속성하는 방식이다. 그는 “잘 속

성된 흥어에서 풍기는 냄새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유입돼 살균 작용을 하고 많이 먹어도 탈이 없는 최고의 건강음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명인은 황토음식 경연대회 최우수상, 흥어 썰기 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수 명인은 황토를 이용해 만든 속성실에서 흥어를 사하는 장인이다. 이 방식은 ‘황토방 속성 흥어’란 이름으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김 명인은 “흥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황토를 이용한 속성실을 만들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토가 방출하는 원적외선으로 세균 생리작용을 활성화하고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유해물질을 방출한다”며 “향이리에 짚을 깔고 흥어를 넣은 다음 황토방에서 숙성한 흥어는 그 맛과 향이 비할 데가 없고 흥어의 좋은 성분을 극대화한다”고 소개했다.

김 명인은 전남대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금성수산’ 김지순 대표



‘영산포 흥어’ 김영수 대표

중인 아들과 함께 흥어 연구와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정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통식품 명인은 전통식품의 보존과 계

승·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이 지정한 명인이다. 명인에 지정되면 제품에 명인 표시와 표시사항을 부착할 수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호반 김상열 회장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꽃 구입해 임직원 선물...다음주자 김홍국 하림 회장 지목

호반그룹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2일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이 캠페인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김 회장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의 지목을 받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김 회장은 ‘영원한 애정’의 꽃말을 지닌 튤립과 안개꽃을 골라 그림사 임직원에게

선물했다. 호반그룹은 생일을 맞은 임직원과 신입 사원들에 축하 꽃다발과 케이크 상품권 등을 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추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임직원과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요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함께 봄인사를 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달 대한적십자사에 성



김상열(왼쪽 다섯번째) 호반그룹 회장과 임직원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호반그룹 제공)

금 3억원을 기탁했고, 200여 임대 매장에 최장 6개월간 임대료 10~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여 개 협력사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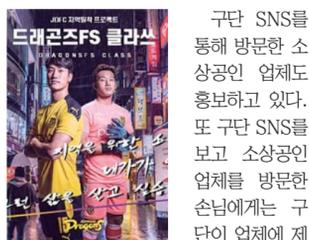
“지역 상권 회복 전남드래곤즈가 함께 합니다”

‘FS 클래스’ 프로젝트

SNS로 매일 1개 업체 홍보

전남드래곤즈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위해 ‘전남드래곤즈 FS 클래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이 살아야 구단도 산다’는 의미에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기획됐다. 전남드래곤즈 마스크트 철물리와 직원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며 “합내세요. 전남드래곤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는 응원 멘트와 함께 전남 선수들의 친필이 담긴 유니폼과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구단 SNS를 통해 방문한 소상공인 업체도 홍보하고 있다. 또 구단 SNS를 보고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한 손님에게는 구단 임직원에게 제 공한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전남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해 응원하고, SNS를 통해 매일 1개 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18년 간 소외 이웃에 온정

장성 이영심씨 전남지사 표창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숨은 의인’ 장성 서삼면 장산리 이영심(여·58)씨가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18년 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씨는 평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직접 준비한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결속을 다지는 나눔에도 힘쓰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박응렬 신임 원장 취임

박응렬 전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이 지난 1일 제3대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원장은 영광 출신으로, 기술고시(22회)



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전남도와 환경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으로 근무한 환경 분야 전문가다. 인적네트워크와 풍부한 경력을 갖춰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김환국(㈜금광공사 대표)·김순씨 장남 형남군, 고정주(㈜나영산업 대표)·박화자씨 차녀 주리양=11일(토) 오후 5시30분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웨딩홀. ▲박형래(전 대한석탄공사 국장)·이귀례씨 장남 노익군, 배승수(광주영어방송 사장)·고은숙씨 장녀 윤경양=11일(토) 오후 2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광주 5층 엘린홀.

일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아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속삭이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

- 박)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치유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

- 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호산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 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목요일에 만나는 희망 가족교육 참여자=3월 19일~4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4층 062-526-337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 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

- 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최영일씨 별세, 최우진·선영·선미·선화·성영씨 부친상, 김은미씨 시부상, 홍충국·안중구·손태룡·배정혁씨 부부상, 조순순씨 배우자상=발인 3일(금) 오전 9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